



전주대, 충칭시와 한국어직업기능센터 설립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중국 충칭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이하 인사국), 충칭건축과학기술직업학원과 함께 최근 '한국어직업기능센터'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어 교육과 직업교육을 결합한 해외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어 능력과 기술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해외에서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향후 전주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뒤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협약에 따라 전주대는 직업기능 등 교육과정 체계·교원·학술지원 등을 제공하고 학점 상호 인정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 충칭시 인사국 산하 직업기능감정센터는 중국 직업기능 관련 정책 지도와 센터 운영 공간을 지원하며, 충칭건축과학기술직업학원은 센터 운영·시설관리·학습자 관리 등 현지 운영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도 컸다. 전주대는 협약 추진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충칭시 인사국 등 관계 기관과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대학이 함께 해외 인재를 발굴하고, 유학·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마련했다.

전주대는 한국어직업기능센터를 단순한 한국어교육기관이 아닌 한국 유학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직업교육·취업·지역정주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해 해외에서부터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전주대 진학 이후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전국학생교육원발전협 교육요원 합동연수회

전국 학생체협교육 기관 관계자들이 전북 부안에 모여 학생 안전교육 강화와 체협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변산 소노벨 리조트와 부안 일원에서 '2026 전반기 전국학생교육원발전협의회 교육요원 합동연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전국학생교육원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이 주관했으며, 전국 26개 학생교육원 원장과 교육요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학생 체험활동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 안전교육 강화 방안과 체협 중심 교육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의 해양안전체험관과 수상안전체험관 등 현장 시설도 직접 둘러봤다. 아울러 부안 변산반도의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 전국 교육요원 간 소통과 협력의 폭을 넓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오상근 기자

남원 금동, 경로당 순회 나눔 일정 마무리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례)는 지난 20일, 14동 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갈비탕 나눔 행사 치랑뚝뚝데이를 개최했으며, 지난 8일부터 매일 정기적으로 이어온 관내 경로당 순회 나눔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금동의 나눔 활동은 그동안 9개 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하며 진행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따뜻한 인부를 전하는 안심 소풍 친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박경수 법무사, 운봉읍에 이웃돕기 성금기부

남원시 운봉읍은 관내 법무사박경수사무소(법무사 박경수)가 120만원을 기탁하는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경수 법무사의 이웃사랑은 지난해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20만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어김없이 12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사회적 기업의 모범'

신우종합철강 주성 ENG, 삼학동에 백미 50포 기탁

신우종합철강 주성 ENG(회장 김미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신우종합철강 주성 ENG는 최근 저소득 세대와 사회 복지시설·단체 등을 위해 삼학동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50포(2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에 낸 백미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신우종합철강 주성 ENG는 기업의 성장 가치를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항상 주변의 어려운 곳을 찾아 기업 스스로 봉사과 기부를 통한 나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년도 나운동 기부에 이어 올해 기부 역시 어려운 이웃을 찾아 주는 기업의 따뜻한 기부는 타 사업장의 모범으로 기부 문화의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구 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홍종철 삼학동장은 "나눔을 실천해 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한편 신우종합철강 주성 ENG는 피복 강관, 이형관 스마트 밸브 등 고기능 철강 제품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수도 및 에너지 산업 기반 시설 전반에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며 국가 기반 시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상·하수도 강관 파이프 및 강관관측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으로 우뚝 서 있으며 최고의 기술력으로 군산의 대표적 철강 전문 강소기업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30년 생명나눔 실천'

정읍 신태인파출소 최재근 경감

전북혈액원에 헌혈증 100장 기부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원장 김동기)은 정읍경찰서 신태인파출소에 근무하는 최재근 경감이 최근 혈액원을 찾아 헌혈증 100장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증 기부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공직자가 앞장서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사회 내 헌혈 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다.

혈액원은 이번 최 경감의 헌혈증 기부를 계기로 공식사회 내 자발적인 헌혈 참여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 경감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백혈병 치료를 위해 헌혈증 50매를 전달하는 등 지금까지 200여 장의 헌혈증을 기부했으며, 평소에도 요양시설 목욕봉사와 밀반찬 나눔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최 경감은 2022년 1G 의인상을 수상했으며,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에서는 '자원봉사왕'에 선정되기도 했고, 2024년 전북도인일보 주최 제26회 '진정봉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96년 첫 헌혈을 시작한 최 경감은 30년 가까이 헌혈을



통해 꾸준히 생명 나눔을 실천해 오며 헌혈 300회를 달성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가 다의 헌혈자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 포상인 '헌혈유공장 최고 명예대장'을 받았다.

최 경감은 "작은 실천이 모여 큰 희망이 되듯 진심 어린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생명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자신의 선행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한·중 전통 교류 순회공연 마무리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종현)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중국 난징과 윈저우에서 진행한 한·중 전통 교류 순회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공연은 국악원과 주상하이한국문화원(원장 이동혁)이 협력해 난징과 윈저우 두 도시에서 진행됐다.

난징 공연은 지난 18일 난징예술학원 실험극장에서 개최됐으며,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과 장우성(강소성) 정부가 공동 주최한 '2026 한·중(강소성) 우호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한·중 합동 문화공연 형태로 마련됐다.

윈저우 공연은 21일 윈저우 대극장에서 한·중 전통음악 교류의 밤' 행사로 진행됐으며, 양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교감을 나누는 무대로 꾸며졌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연곡무 △호남검무 △부채춤 △판소리와 부채춤 △판굿과 소고춤 등 한국 전통공연예술의 멋과 흥을 담은 무대를 선보여, 판소리의 깊은 울림과 전통춤의 섬세한 춤사위, 판굿의 역동적인 신명이 어우러진 공연은 난징과 윈저우 현지 관객들에게 한국 전통예술의 생동감과 예술적 깊이를 전했다.

중국 측 공연단은 전통무용과 기악·가창 공연 등을 함께 선보이며 양국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교류 무대를 완성.



양국 예술단체는 합동 리허설과 공연을 함께하며 전통예술을 통한 상호 이해와 문화적 공감대를 넓혔다.

이번 일정은 지난해 중국 내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난징과 윈저우 2개 도시로 무대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종현 원장은 "이번 순회공연은 국악이 지닌 예술적 가치와 한국 전통문화의 생명력을 중국 현지 관객과 직접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해외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전통예술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법무보호 전북, 27일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 개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법무보호 대상자 부부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응원 속에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선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승경)는 오는 27일 '제27회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무보호 대상자 가정의 안정적인 출발과 건강한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로, 전주 지방감찰청과 법무부 법무보호 위원 전북지부협의회 전북지부 운영위원회, 전주그랜드힐스테이트, 전주현제딩 등이 후원에 함께한다.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은 지난 2000년 처음 시작된 이후 올해로 27회째 이어지고 있는 전북지부의 대표적인

법무보호 지원사업이다. 지금까지 총 124쌍의 보호 대상자 부부가 이 행사를 통해 백년가약을 맺으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특히 단순한 결혼식 지원을 넘어 가족관계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돕고, 보호 대상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자립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역사회 또한 이들을 향한 응원과 격려에 동참하며 법무보호사업의 가치와 필요성을 함께 나누고 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호 대상자의 자립과 가정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정읍 내장산, 축축한 신록 물결 가득

정읍 내장산이 봄비를 흠뻑 맞으며 짙은 초록빛 신록과 오색 연등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단풍나무 잎사귀들은 빗물을 뚝뚝 머금어 한층 선명하고 맑은 연두색을 띠고 있다. 연못 한가운데 물담을 쌓고 그 위에 올라앉은 파란 지붕의 우화정은 주변을 뚝뚝 둘러싼 푸른 숲과 어우러져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한다.

우화정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길게 매달린 오색 연등이 눈길을 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차분한 숲길 위로 분홍 파란, 노랑 등 알록달록한 연등이 따스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화려한 가을 단풍 못지않게 봄비 젖은 내장산의 초록빛 풍경도 이따금씩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볼거리다. /정읍=김대환기자



한전 전북, 군산 독거어르신에 '효 꾸러미' 전달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김기현)는 가정의 달을 맞아 군산지역 취약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13일 군산지역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효(孝) 꾸러미 지원사업' 기탁식과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족 모임이 많아지는 5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독거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고, 영양 불균형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전 임직원 봉사단은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한 뒤 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는 식료품과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효 꾸러미'를 직접 제작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건강 상태와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시간을 함께했다. /오상근 기자·군산=김만호 기자



익산 부송지역아동센터에 'JB희망의 공부방'

전북은행이 익산지역 아동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JB희망의 공부방'을 새롭게 조성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22일 부송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33호'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송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와 중학생 등 총 2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2005년 개소 이후 장기간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학습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북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흔들림이 심하고 사용이 불편했던 책상과 의자를 모두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또한 도배와 바닥 데코타일 시공을 실시해 아동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빗바람 블라인드도 새롭게 교체해 학습 집중도를 높였다. /오상근 기자

장수소방서, 농기계 안전사고 선제 대응·특별교육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장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사고 대비 특별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봄철 농번기에 찾아지는 트랙터, 경운기 등의 기입 및 갑질 사고 현장에서 119대원들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신속한 구조를 통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훈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장수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태창진 주사가 직접 교관으로 나서 소방대원들에게 맞춤형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